

지난해 전국 하늘길 1억3402만명... '회복' 전망

코로나 이전 2019년 1억5767만3444명 대비 85% 회복 김포·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 여객 7788만7021명 집계

지난해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국내선과 국제선 포함 1억340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전인 2019년 1억5767만3444명과 비교해 85%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가 오송 노선 개설과 김해공항에서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수는 1억3401만8087명(국내·국제선 합계)으로 코

로나19가 발병한 지난 2019년 1억5767만3444명과 비교해 85%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별로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5613만1066명, 항공기 운항편수는 33만7300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적은 2019년 7116만9722명과 비교해 79%의 회복률을 보였다. 항공기 운항편수도 2019년 40만4104편과 비교해 83.4%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일본과 동남아 노선 이용객이 회복되면서 올해 인천

공항의 매출액은 약 2조1102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3800억 원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공항공사도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7788만7021명으로 집계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50만1372명과 비교해 90% 넘게 회복한 것이다. 항공기 운항편수는 지난해 46만5940편으로 2019년 51만4837편과 비교해 90.5%의 회복률을 보였다.

여객수는 제주공항이 2921만793명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많았고, 이어 김포 2357만2413명, 김해 1369만4549명, 청주 369만5486명, 대구 330만1930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청주공항이 2019년과 비교해 89.2%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K와 티웨이항공의 항공기 운항이 확대된 것이 여객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이어 김포와 김해공항도 각각 73.8%와 65.9% 여객수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6월30일 김포~가 오송 노선 개설과 김해공항에서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국내공항의 완전한 회복은 오는 2025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도 여객이 900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이보다 1년 앞당긴 올해 코로나19로 부터 완전한 회복과 매출액 1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용변후 무심코 내린 물 '식중독 위험'

환자 분변에 겨울 노로 바이러스 위험 해외 연구서 변기물에 비말 확산 확인

화장실에서 용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변기 물을 내리면서 작은 물방울인 비말이 변기 밖으로 튀어나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지도에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요령을 이같이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도 활동이 왕성해 겨울철에도 방심하면 안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식품을 통해서도 감염되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위험이 있다. 특히 환자가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변기 뚜껑을 닫으면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비말이 확산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미국 콜로라도 볼더대학 연구

팀은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변기 밖으로 튀어 오르는 비말을 녹색레이저로 시각화했다.

해당 연구에서 미세한 물방울이 천장까지 튀어 오르는 것이 확인됐다. 비말은 초속 2m로 1.5m 높이까지 도달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 영국 리즈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구팀은 변기 뚜껑이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의 세균 확산 정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변기 주변을 물론 화장실 바닥에서도 세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노로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용변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구토물은 염소 소독액(1000~5000ppm)을 적신 종이 타월로 5분 정도 덮은 후 닦고, 비말봉투에 담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북농관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206곳 적발

전년보다 32% 증가... 거짓 표시 121곳 형사 입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 반 22명을 투입해 2023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6곳(거짓 표시 121곳·미표시 8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온라인 거래와 수입량 증가로 전년(156곳)보다 32%나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121곳)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또 미표시한 업체(85곳)는 품목 및 업소 형태에 따라 2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의 경우 업체명 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4개 업체에는 과징금(448만원)을 부과했으며, 중국산 배추김치 등 11억원(465t) 상당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 검찰에 넘겼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32건(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22건(11%), 콩 21건(10%), 쌀 20건(10%), 쇠고기 15건(7%) 닭고기 1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비슷하나 쌀 위반 건수(4건)는 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북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2023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6곳(거짓 표시 121곳·미표시 8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점검과 함께 국내 소비 상황과 수입 증가 품목 등을 고려해 설·추석, 휴가철 축산물, 대학·학원가 음식점, 배

추김치 등에 대한 시기·테마별 특별 단속을 추진했다.

/뉴시스

갑진년, '알파 세대' 마지막 아이들 태어난다

팬데믹→온라인 익숙...강력한 문화·경제적 영향력 가질 것

올해 전원이 21세기 출생자인 '알파 세대'의 마지막 아이들이 태어난다. 외신은 이들이 '완벽한 디지털 세대'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전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1일(현지 시간) 올해 2010~2024년 출생자를 일컫

는 '알파 세대'의 마지막 아이들이 태어나며 2세대 다음 세대가 완성된다고 보도했다.

알파 세대는 미국 사회학자 마크 매크린인 만든 용어다. 그는 알파 세대가 20억 명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알파 세대는 '아이패드 키즈'로 불리기도 한다. 알파 세대의 시작과 아이패드의 출시 시점이 2010년으로 겹치기 때문이다.

엑시오스는 이들을 '최초의 완벽한 온라인 세대'로 칭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태어난 이들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 문화에 가깝게 자라며 개방적인 온라인 문화에 노출됐다.

엑시오스는 코로나 또한 알파 세대의 출현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기반 의사소통이 널리 정착하

며 알파 세대의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알파 세대의 43%가 온라인으로 친구와 어울린 경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알파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특화되어 현실적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엑시오스는 온라인에서의 유대감은 현실의 유대감으로 연결된다며 알파 세대 또한 충분한 인간 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전북 전주장학숙 2024년 입학생 모집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장학숙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2024년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개선사항으로는 전북도의회 및 전라북도의 도움으로 보호자 범위를 기존 부모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4촌 이내 친족으로 자격기준 확대와 예체능 성적을 하향시켜 보다 많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120명(남학생 37명, 여학생 83명)으로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2월 8일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발 결과를 발표예정인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전북에 소재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대상자의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대상자 본인이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인 학생으로써, 성적 기준

으로는 재학생은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C+학점 이상, 신입생은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예체능은 40점 이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교 전체성적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은 성적 50%, 가정형편 50%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한다.

전라북도전주장학숙은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에 소재한 전라북도 장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정원 300명 규모의 시설로 월 부담금은 15만원(일식 포함)으로 개별 냉장고, 에어컨, 인터넷, 독서실, 헬스장, 족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대학별 통학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접수방법은 관할 각 시·군청 방문 접수와 전라북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전라북도전주장학숙(063-240-4800~4) 또는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